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진리가 감당하는 책임

성경: 히브리서 12장 1-7절

Tag: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 12:1-7)

오늘 말씀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구름같다는 말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중들을 표현하고 있다.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들을 뜻한다.

- 구원자 예수님의 증인들,
-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끊어 버리신 예수님의 업적에 관한 증인들,
- 예수님의 통치에 관한 증인들,

-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관한 증인들,
-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관한 증인들
- 이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는 바울의 증언이다.

**오늘 우리도** 이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서야 한다. 나도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닌가? 나의 인생이 고작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만큼 허망하고,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생무상에 대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하고, 고뇌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했지만, 그 답은 결코 쉽지않다. 각자 개인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은 무자비 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포 스럽기까지 하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피난하는 난민들이 겪게 되는 경험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다양할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천안함 사태나 세월호 침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답**을 찾고자 하는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인류는 수 많은 종교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해답을 찾을수도, 구원을 이룰수도 없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인간에게 스스로 다가오셨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저주를 받게 되는 아담을 위해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짓밟을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하였고, 심지어는 짐승 이하의 생활을 하기까지 하였으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

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셨다. **사람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땅에 보내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계시 그 자체이며, 사랑 그 자체이며, 구원 그 자체이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화제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논리다.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 주장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심지어 개톨릭까지도 고개를 끄덕인다(왜냐면 자신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교리). 오직 계시를 믿는 개신교만큼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개신교의 어떤 교단은 종교다원주의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교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신교는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을 거부한다. 이런 개신교의 태도를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은 독선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런 비난이 두려워 진리를 왜곡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카톨릭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 알려져 있다. 진실은 그것이 아니다. 카톨릭은 정식 가입이 아닌 참관인자격으로 참석한다. WCC안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신앙과 직제 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그들이 여기에 가입된 이유는 결국 직제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입된 대부분의 개신교

회는 WCC에서 탈퇴할 것이다.

WCC는 쉽게 말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된다. 각자 교단에서 특이한 신앙고백을 할 수는 있고, 개인적으로는 괴상한 신학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WCC는 공동의 가치를 위한 일치운동일 뿐이다. 작년에 우리 통합총회는 WCC는 ‘연대’일 뿐 ‘연합’은 아님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즉, 공동의 가치를 위한 협력을 할 뿐, 하나의 교회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이나,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종교다원주의)이 WCC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해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카톨릭일 뿐이다.(정작 이슬람이나 불교에서조차 무관심하며, 관심 있는 자들의 모임일 뿐이다.) 참관인인 카톨릭의 교리가 곧 WCC의 신앙고백은 아니다.

또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따라 ‘밖에도 양이 많고 안에도 이리가 많다.’**는 명제를 기억해야 한다.

WCC에 가입된 교단만 진정성이 있는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통합측 교회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WCC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가치관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가치는 / 이 가치는 그 어느 누구도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분명하게 주장하시는 것인데, / 그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미래적 천국과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가치만큼은 다른 종교가 공유할 수 없는 가치다.

요즘 나는 계속해서 입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타종교인들이나 일반인도 얼마든지 입사체험은 한다. 그들과

기독교인의 임사체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로 임사체험을 해석한다.(분명히 기독교적인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기를 거부한다.)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천국에 관한 경험을 한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대부분 낙원을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곳은 천국이 아닌, 심판을 받기 전 임시 처소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임사체험을 하게 되더라도 여기 저기 맴돌지 않고 제대로 된 지옥이나 낙원을 견학하고 돌아오게 된다. 즉, 자신의 세계관 때문에 인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뜻이다.

또는 수술이나 사고로 급격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같은 임사체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위험에 처한자들을 위한 임시 도피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된 가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1. 인내로 경주할 것(1)

1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라. 성인이 되었으면, 율법,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살아라.
- 사회적인 이념에서 벗어나라. 종교적인 율법에서 벗어나라. 무거운

짐을 벗어라.

-가정에 대한 짐, 회사에 대한 짐, 미래에 대한 짐,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라.

-엎때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

-욕심이 짐을 만든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짐은 죄라는 짐이다. 모든 종류의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과 영혼이 되어야 한다.

-대신 인내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경주하라!

-십자가! 자기가 해야 할 것 십자가! 자신의 사명 십자가! 자신의 경주 십자가! 자신의 몸을 불사를 십자가! 이것만 보고 달려가라!

-그러다 쓰러져도 괜찮다. 그러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다 손해나도 괜찮다.

-다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라!

## 2. 보좌 우편의 예수님을 바라보자(2)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셨다. 가장 큰 영광 가운데 계신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다. 본래의 자리를 차지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참하게 되셨던 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냐면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나. 그들 앞에서의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만왕의 왕 예수님도 고초를 당하셨는데, 비천한 자가 더한 고난을 당한들 무엇이 부끄러울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런 예수님을 바라보자.

-진리를 가슴에 안고 그 진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

### 3. 아들이,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5)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  
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  
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죄인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말라.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으로 판단이 흐려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즉각 우리를 징계하신다.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12:6)

-그러면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거 너무하신거 아니냐고 따지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선다.

-이 모든 모습이 그냥 죄인의 모습일 뿐이다.

-그토록 일렀건만, 잊어버리고, 좁은 속이 너그러워지지 못한다.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  
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12:9)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받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누가 천국에 가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고, 정신 차려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홀로서기와 함께서기      성경: 마태복음 19장 4-12절

Tag: 제자훈련, 결혼, 홀로서기, 함께서기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19:4-12)

- 홀로서기; 스스로 성인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 일찌기 홀로 서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나,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홀로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하다.
- 홀로 선다는 것;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고 존재하는 것
- 경제적 자립, 정신적 자립, 학문적 자립(전문지식;나만의 일하는 방

식), 상식적 자립

-사회윤리적 자립

-그러나 홀로서기는 성장일 뿐, 완성이 아니다.

-홀로서기는 책임이거나 소확행일 뿐, 그것이 만족이거나 행복이거나 목적이거나 소망이거나,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함께 서기다.

-함께서기는 완성된 홀로서기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은 함께서기다.

-함께서기가 축복의 통로다. 모든 사람이 축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10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당시 로마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

-현재 이슬람 남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비슷함.

-완악한 세대의 성인지 감수성.

-그러나 요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로마시대의 남성들이나, 이슬람 남자들의 감수성만큼 악하다.

-만약 여성들에게 남자를 지배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된다면, 악한 남자와 똑 같이 악한 여자가 될 것. 축천무후.

-성경적 성인지 감수성을 회복해야 한다.